日, 영가 이름인 '계명' 두고 논란

〈戒名〉

시다림 의식서 영가 수계
보시금 따라 계명도 달라
금전적 활용에 의미 퇴색
"비불교적인 전통"비판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각 가정에는 계명이 쓰여진 선조의 위패가 불단에 모셔져 있다.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불자가 수계를 받게 되는 계명(戒名)은 한국에선 흔히 법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죽은 후의 고인에게 붙이는 영가의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이 계명을 둘러싸고 일본 불교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11일 일의 '야후 재팬뉴스' '오토나 앤서' 등의 매체들은 계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비판들을 보도했다.

같은 대승불교권 국가이지만 불교의 신행활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한일 양국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는 바로 계명, 혹은 법명의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불자로서의 입문인 수계를 받고 신행의 길잡이를 삼는 의미로 법명을 계사스님에게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고인이게 붙이는 영가의 이름으로 계명이 통용되고 있다.

이는 중세 이후로 일본에서 정토신앙이 강해진 데서 유래한다. 살아생전 공덕과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사후 극락에 왕생한 이는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성불하기 위해 부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영가의 이름으로 계명을 붙이게 된 유래로 전한다. 실제 일본의 시다림 의식 가운데 영가에게 수계를 하고 계명을 전하는 의식이 들어있다.

이러한 일본의 계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두 글자에서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종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살아생전의 신행이나 수행정진의 단계에 따라 계명 앞에 도호(道號)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경우가 있다. 또 사회나 종단 등에 큰 업적을 세운 이에게는 원호(院號)라고 하는 특별 법명이 추가되기도 한다.

문제는 현대에 와서 이러한 계명의 구성과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이 강력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계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후에 계명을 붙이는 것은 일본에만 있는 전통으로 불교 고유의 모습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겨우 몇 글자 남짓한 계명을 위해 몇 십 만엔서부터 몇 백 만엔까지 요구한다. 과연 이것이 계율적으로 합당한 일인가?"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실제 일본 사회에서는 '비싼 계명'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원호, 도호, 계명을 모두 포함한 이름을 말한다. 살아생전 큰 업적이 없거나 수행정진이 없더라도 고액의 금전을 지불하면 모든 계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사찰의 한 주지스님은 "가장 상급의 계명인 원호의 경우, 지역이나 사찰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십만엔 정도면 교부받을 수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는 "몇몇 글자의 경우 출가자에게만 쓸 수 있음에도 '스님들처럼 멋있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 고 고액을 내밀며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계명 시스템에 반대하는 측은 "일본의 계명 시스템은 옛날의 순수했던 신앙적 기원과는 멀어져, 사실상 금전적으로 풍족한 이들을 위한 겉치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계명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켜야 한다는 측의 반론도 존재한다.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계명의 구성이 어찌 되었든, 그 뜻은 고인이 극락왕생, 혹은 성불을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을 쉽게 무시해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또 어느 스님은 "종종 계명이 아닌 생전의 실명이나 스스로 지은 아호 등을 계명으로 삼아 천도재를 지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나 이 경우 전통적인 의례체계에 맞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폐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본불교의 오랜 전통인 '계명'이 현대에 뜨거운 논제로 분분하다.

부처님과 사랑 인연 맺어요

日센토지, 관세음보살 판넬
기념촬영 명소로 SNS 화제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는 기념촬영 판넬, 사진출처=마이도나 뉴스

흔히 사랑의 인연을 '붉은 실을 묶여 있다' 라고 비유한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과 붉은 실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7월 1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 '마이도나 뉴스' 등의 언론들은 이 특별한 모습을 보도했다.

오사카시 히라노구에 소재한 센코지(全興寺)는 고대 일본불교에 중요인물인 쇼토쿠 태자(聖德太子)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천년고찰이다. 센코지는 시내의 상가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는 등 지역친화적인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유서 깊은 사찰에 최근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겼다. '붉은 실의 인연맺기' 는 이름이 붙은 기념촬영 판넬이다. 판넬에는 관세음보살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앞에는 촬영자가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놓여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의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이 묶여있고 실의 다른 끝은 벤치의 끝을 향해 있다. 기념촬영을 위해 벤치에 앉아 실 끝의 고리에 손가락을 넣으면 센서가 반응, 관세음보살님과 연결된 실에 붉은 불이 들어온다. 심지어 혼자서도 찍을 수 있게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판넬 앞에 설치되어 있다.

센코지 측은 "흔히 고전에서 연인간의 사랑의 인연을 '새끼 손가락에 붉은 실을 묶었다' 고 표현하곤 한다"며 붉은 불이 들어오는 실 모양의 조형물을 만든 모티프를 설명했다. 센코지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기, 지난 5월 하순에 설치가 완료됐다. 이후 독특한 구성과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놓인 사실이 SNS를 통해 입소문을 모으며 유명해졌다. 주지인 카와구치 뮤닌 스님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사람간의 인연을 연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떨어져 있더라도 모두 연결된 세상 아닌가"라며 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센코지 측은 SNS를 통한 사찰 홍보를 의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찰의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QR코드를 이용한 사찰의 안내나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등을 경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지구서 가장 먼저 일출 만나는 '불탑'

티베트 사원 팰풍 불교센터,
뉴질랜드에 불탑 조성 추진



기즈본 팰풍센터에서 포교 활동 중인 카르마 도제 스님과 카르마 담최 스님. 사진출처=기즈본헤럴드

지구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불탑이 뉴질랜드에 조성된다. 지난 7월 11일 뉴질랜드 지역 신문 '기즈본헤럴드' 는 기즈본시에 소재한 티베트불교 사원인 팰풍 불교센터의 불탑 프로젝트를 특별 보도했다.

뉴질랜드 북섬 북동쪽의 지방도시 기즈본에는 팰풍 카규 삼탠 쵤링(Palpung Kagyu Samten Choling)불교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북섬 북동부 최초의 불교사찰인 이곳은 2000년 7월 개원하였으며 티베트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카규파 소속이다. 사찰의 이름은 '선정의 가르침이 퍼지는 사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북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에 있는 팰풍사원의 공식 분원 중 한 곳이다. 팰풍사원은 18세기에 창건 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180여 곳의 분원을 두고 있다.

7월 11일 오클랜드 팰풍 불교센터의 주지인 소남린첸 스님은 "우리 센터의 본사인 팰풍사원에서 '기스본시에 불탑을 조성하라' 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린첸스님은 "팰풍사원의 방장이신 타이 시투 린포체님과 주지인 페마 된요 닝제 스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보는 이 길상한 땅인 기즈본에 불탑을 세우는 것이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말했다.

불탑의 조성을 위해 팰풍사원은 기즈본 팰풍센터에서 포교활동중인 카르마 도제 스님과 카르마 담최 스님, 두 스님에게 북섬의 무라와이 해변부터 타타포우리 해변까지 해돋이로 유명한 여러 장소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린첸스님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일체의 장애물없이 볼 수 있을 것,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높은 지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 탑이 세워진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보는 불탑이 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현재 조사를 마친 두 스님은 구글지도와 구글어스를 통해 인도의 팰풍 사원에 탑을 건립할 후보지를 보일 예정이다. 후보지 중 팰풍사원을 이끄는 스님들이 풍수지리, 자연조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최종 건설지를 확정한다.

불탑 조성지가 확정되면 불탑은 티베의 전통적인 규격과 조성작법에 따라 조성된다. 현재 계획으로는 약 27m 높이의 탑이 조성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탑은 최소 4에이커의 면적이 필요하며 이는 축구장 2개 크기에 맞먹는다. 계획에 변경이 없다면 이 탑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불탑이 될 것이다. 또한 불탑은 평화와 조화를 도모하는 장소로서 공원 같은 환경이 함께 건설될 예정이다.

린첸스님은 "티베트불교에서 불탑은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며 화합하는 사부대중을 의미한다. 불탑이 서있는 곳은 그 주변 환경에 평화롭고 긍정적인 힘이 퍼지는데 강항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불탑과 주변의 공원은 기즈본 사람들과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기즈본 지방의회에 기증할 예정이다"고 불탑 조성의 의의와 계획을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베트남불교협, 불교 사진 공모전

9월까지 '불교와 삶' 주제로
인종황제 서거 712년 기려



베트남 사진공모전 기자회견. 사진출처=년전

베트남에서 불교를 주제로한 사진공모전이 개최됐다. 지난 7월 10일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년전(nhân dân)' 은 베트남 불교협회가 개최한 '불교와 삶 사진 공모전' 개최를 보도했다.

베트남 불교 종단협회는 베트남 남부의 고찰인 죽림선원(티엔 비엔 쭉럼)을 개산한 쩐 인종황제의 서거 712주년을 맞아 '불교와 삶' 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공모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와 베트남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의 폭을 넓히는 사진이 모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베트남 불교가 사상, 철학, 문화, 역사 등 베트남의 다양한 측면에 존재한다는 것도 사진전의 주제에 깊은 연관이 있다.

이번 공모전은 베트남에서 찍은 불교 건축물, 예불 의식, 죽림선원 사진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0일 까지 열린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모든 베트남 시민과 외국인이 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에 최대 10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수상 사진의 작가는 최대 2천만 동(한화 약 1백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 10월 15일 하노이의 문학사와 베트남 북동부에 있는 꽝닌성 옌뜨 유적지등에서 수상작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